

강진군 청소년 정책 협약으로 글로벌 인재 거점도시 ‘우뚛’

베트남 유학생 등 다국적 학생 시대 맞아 청소년 정책 전환점

강진원 군수 “인구대책 넘어 지역 미래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

강진군이 12일 강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 강당에서 강진군 청소년 정책 협약식을 갖고 글로벌 인재 거점도시로 우뚝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은 청소년 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다문화 감수성과 공동체 기반을 갖춘 ‘포용적 청소년 정책’ 실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5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 7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학생 부이나족(17)양은 3개월의 한국 유학생살에 대해 “음식과 문화가 낯설지만 많은 강진 사람과 강진 친구들이 친절히 대해줘서 열심히 공부중”이라며 서둘러 자신감 있는 한국말로 소감을 발표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일정은 협약 서명을 미리 작성된 전자 형식의 문서에 온라인 서명해 추진, 참신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이기들을 행정과정에 적절히 잘 활용하려는 강진군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2024년 12월말 기준 강진군 청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약 14.6% 감소한 2,354명이다. 이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과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5년 5월말 기준 280가구에 241명의 이주배경 자녀가 거주 중이며, 올해 7명의 베트남 출신 고등학생의 입학이 시작으로 2026년에는 100명의 해외 유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외국유학생 300명이 강



진에서 학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증가 추이는 전남생명과학교 10명, 2026년 전남미래국제고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강진군만의 긍정적인 사례이다.

이번 협약에는 강진군과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경찰서,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남생명과학교, 강진군가족센터,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진군농산어촌활성화지원센터, 강진군청소년지도위원회, 강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강진원 강진군수 공약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청년 인재 기반 확보’와도 직결된다. 군은 유학생과 지역 청소년이 공존하는 통합 공동체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고 향후 전국 농산어촌의 표준모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강진을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영암군민 참여로 예방한다

사전대비 기본계획 시행... 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영암군 자연재해는 영암군민의 참여로 예방한다.

13일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5년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본계획’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기본계획의 골자는, 마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주민이 예방 활동에 참여해 스스로 살터를 지키게 하는 것.

이렇듯 영암군은 민관협력 예방활동으로 지역에 주민참여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동시에, 재난대응체계 및 재해 우려지역·시설 사전 점검·보완으로 자연재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암군의 기본계획은 △관계부서별 대응체계 구축 △부서별 재해 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주민참여 마을 정비 캠페인 △주민 대피 계획 정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영암군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시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비상1·2·3 단계별 비

상근무체계, 13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영암군민 참여의 첫 단추로 영암군은 16~20일을 ‘위험 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영암군민이 살터, 생활터 등에서 발견한 여름철 자연재난 위험요인을 ‘소통폰’,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영암군이 접수 즉시 담당자를 배정해 조속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의 취지를 설명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22일까지 이장, 사회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 마을주민이 참여해 대청소, 재난 위험요인 제거 등을 실시하는 ‘우리마을 정비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재, 영암군 군민안전과 등 시설물 소관 13개 부서는 과거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11일 미암면 노적소하천 폭우피해복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 등에게 공사 현황을 듣고, 꼼꼼한 피해 재발 방지 작업을 당부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 7월부터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장성읍 소재 공립사립당예랑어린이집, 전남 공모 최종 선정

장성군에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군은 최근 공립사립당예랑어린이집(장성읍 문화로 21-34, 061-395-0420)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 공립 어린이집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집에

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으로, 장성군이 꾸준히 확대해 온 영유아 돌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앞선 11월 온 가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가족행복센터(장성읍 역전로 199-10)’를 개관했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수의 복지기관이 들어서 있다.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도 주요 성과다. 각각 2026년,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서부권에는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한다. 위치는 사창초등학교 인근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 대책회의

인명피해 ‘제로’ 목표로 예방조치 강화 및 부서 협업체계 점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13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부서와 읍면은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함께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장마 전망 및 강수 예보 공유 ▲실과별 사전점검 현황 및

대응계획 보고 ▲6.5.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지시사항 시달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비상 상황 대응체계 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군수는 “올해는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사고는 대부분 징후가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재난취약지역 점검과 실시간 상황 공유, 대피지원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배수로·하천 정비 ▲산사



태 및 노후 시설물 점검 ▲폭우 대비 시설물 보강 ▲SNS 및 마을방송을 통한 실시간 주민 안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실행을 독려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합동 훈련과 연락망 재정비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장흥군은 1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풍수해로 인한 사자산 산사태 발생으로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붕괴 및 대형화재 대응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로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형 훈련을 준비했다.

지난 5월 26일, 6월 5일에는 1, 2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천형 훈련을 준비했다.

특히 재난 초기 대응점검, 군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통합 지휘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훈련은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어 국민체험단을 모집해 훈련 참관 및 평가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 준하는 경험을 통해 위기 시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제공

